

트레비스 완봉쇼... 호랑이 구하다



두산전 5피안타 9탈삼진... 올 프로야구 첫 완봉승

모처럼 투타 조화... KIA 잠실 13연패 사슬 끊어

트레비스가 한국 무대 첫 승을 완봉승으로 장식하며 팀의 구세주가 됐다.

KIA 타이거즈가 1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투·타의 조화속에 8-0으로 이겨, 최근 3게임 연속 패배에서 탈출했다. 이날 승리로 KIA는 잠실구장 13연패 늪에서도 벗어났다.

한국 무대 두 번째 출격에 나선 트레비스가 9이닝 5피안타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팀에 귀중한 승리를 안겨줬다. 프로야구 2011시즌 첫 완봉승이다.

최고 구속 148km의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앞세운 트레비스는 9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지만 사사구는 단 하나에 그친 '만점 투구'를 보여줬다.

두산과의 1·2차전 선발로 나선 양현종·윤석민이 일찍 무너지면서 고전을 했던 KIA는 이날 트레비스의 호투 속에 방망이까지 동시에 폭발하면서 손쉽게 경기를 풀어갔다.

트레비스가 김동주의 내야안타로 시작된 2회말 먼저 위기를 맞았다. 이성열의 중전안타로 무사 1·3루, 양의지의 땅볼때 홈에 들어오던 김동주가 협살에 걸려 아웃됐다. 그러나 트레비스는 김재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종료시켰다.

이후 트레비스의 공격적인 피칭으로 무결점 투구를 보이며 KIA의 구세주로 등극했다.

8-0으로 앞선 9회말 트레비스는 손시현의 대타로 나온 임재철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원아웃을 잡았다. 하지만 김재환의 땅볼을 처리하던 트레비스가 미끄러지면서 송구 실책을 기록, 1사 2루. 김현수를 2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투아웃. 오재원에게 9번째 삼진을 잡아내며 선발 트레비스가 경기를 직접 마무리 지었다.

트레비스로 안정된 방어망을 구축한 KIA는 타선의 시원한 공세까지 더해져 두산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3회초 안치홍의 2루타가 타선의 도화선이 됐다. 김상훈과 이종범의 안타가 나오면서 1-0. 이용규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를 만든 KIA는 김선빈·이범호·최희섭의 연속안타와 1루수 실책까지 겹쳐져 3회에만 5점을 뽑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7회 상대의 폭투 두 개로 6번째 점수를 뽑은 뒤에도 KIA의 안타 행진은 계속됐다.

KIA는 김선우를 선발로 내세운 두산을 상대로 장단 14안타를 몰아치며 8점을 뽑아냈다. 최근 5경기에서 41점을 기록하는 화끈한 타력을 과시했다.

트레비스는 "한국에서 첫 승을 완봉승으로 기록해서 기쁘다. 집중해서 던지려고 했고, 타자들의 공

격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교야구 주말리그 파행

진흥-화순고 판정 싸고 화순고 학부모들 그라운드 점거

군산상-효천, 동성-일고 순연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라권 경기가 심판판정 논란속에 파행을 빚었다.

9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군산상고-효천고, 동성고-광주일고의 주말리그 3주차 경기가 화순고 학부모들의 그라운드 점거(사진)로 순연됐다.

이날 첫 대결이었던 진흥고와 화순고의 경기에서 나온 심판 판정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화순고가 7-8로 뒤진 9회말, 첫 타자 이상우의 3루타와 폭투를 묶어 8-8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 화순고가 볼넷과 고의 사구 그리고 안타를 묶어 1사 만루를 만들었다. 3루주자가 홈을 밟으면 그대로 화순고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는 상황. 그러

나 3루수 앞 땅볼이 나오면서 홈에 들어오던 주자가 아웃이 됐다. 문제는 다음 플레이에서 발생했다.

포수가 1루로 송구한 공이 타자주자 이경훈에 맞았고, 심판이 아웃을 선언하면서 화순고의 9회말 공격이 종료됐다. 화순고 측은 정상적인 주루였기 때문에 인플레이 상황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심판은 쓰리퍼트라인을 벗어난 주루였으며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결국 화순고는 승부처기 끝에 12-14로 지면서 주말리그 3패째를 기록하게 됐다.

경기가 끝난 후 화순고 학부모들은 "경기 내내 화순고에게 불리한 판정이 계속됐고, 9회말 상황도 명백한 오심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심판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팀의 에이스가



경기 도중 퇴장을 당했다"며 "교육 정상화와 정정당당한 승부를 외치며 시작한 주말리그가 점차 오심과 편파 판정으로 어린 선수들에게 상처만 안겨주고 있다"고 항의하며 그라운드 점거에 나섰다.

경말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경기 무효를 요청하는 화순고측과 대화를 주관하는 대한야구협회측의 대화가 진척을 이루지 못하면서 12시 30분과 오후 3시에 잇따라 시작된 예정이던 군산상고-효천고, 동성고-광주

일고의 경기가 진행되지 못했다. 대한야구협회 이규석 감독관은 "화순고 측에서 촬영한 경기 영상도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고 측에서 공식으로 제소를 하면 이에 대한 징벌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며 "하지만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로 화순고 측에 대한 징계도 동시에 논의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연된 경기는 예비일인 오는 30일 치러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산 탱크’

오거스타

점령할까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10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골프장(파72·7435야드)에서 열린 제75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3라운드 1번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터스 3R 매길로이 1위...4타차 2위 최경주 “5타 줄이면 우승”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제75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상위권을 지키며 역전 우승을 향한 집념을 불태웠다. 최경주는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3시30분부터 할 슈워펠과 동반 플레이로 마지막 4라운드를 시작했다.

최경주는 앞서 10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골프장(파72·743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경주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의 동반플레이에서도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중간합계 8언더파 208타를 적어내 양헬 카베라(아르헨티나), 제이슨 데이(호주), 할 슈워펠(남아공)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우즈는 퍼트 난조 속에 2타를 잃어 공동 9위(5언더파 211타)로 떨어졌다. 그러나 22세에 불과한 유럽의 신성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2타를 줄여 중간합계 12언더파 204타로 4타차 단독 선두에 나섰다.

2타를 줄이며 기본 종계 전반을 마친 최경주는 후반 들어 퍼터가 말을 듣지 않아 흔들렸다.

11번홀(파4)에서는 짧은 파퍼트를 놓쳐 보기를 적어냈고 12번홀(파3)에서 3m를 남기고 세 차례 퍼트를 한 끝에 돌아오는 실수도 저질렀다. 최경주는 15번홀(파5)에서 2m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1타를 줄였지만 남은 홀에서는 버디 퍼트가 홈을 외면하며 파를 지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최경주는 최종 라운드 전략에 대해 “초반 1~3홀에서 점수를 줄여나가 는 전략으로 나가겠다”며 “이후 아멘

코스에서는 1언더 정도로 막아 모두 5언더파 정도를 치면 우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년 전부터 메이저 대회 중 우승 가능성이 큰 것으로 마스터스 대회를 꼽아왔는데 내일 경기를 기대해 달라”고 역전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전날까지 공동 7위였던 양용은(39)은 1타를 잃고 공동 14위(4언더파 212타)로 떨어졌다.

14번홀까지 2타를 잃었던 양용은은 15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냈지만 18번홀(파4)에서 다시 보기를 하는 바람에 이븐과 스코어를 만들지 못했다.

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한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는 6오버파 78타를 치는 부진 끝에 49위(7오버파 223타)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페텔, F1 말레이시아대회도 우승

세바스티안 페텔(24·독일·레드불)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2011시즌 2라운드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페텔은 10일 말레이시아 세팡 국제서킷에서 열린 2011시즌 F1 2라운드 경기에서 5.543km의 서킷 56바퀴(총 길이 310.408km)를 1시간37분39초 832에 달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했다. 지난 시즌 F1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페텔은 지난 시즌 마지막 2개 대회인 브라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회를 연달아 우승한 데 이어 올해 개막전인 호주그랑프리, 말레이시아 그랑프리까지 휩쓸어 4회 연속 우승을 했다.

예선에서 1위를 차지, 가장 앞에서

출발하며 우승 가능성을 불꽃뎀 페텔은 이렇다 할 위기 없이 줄곧 선두로 질주한 끝에 시상대 맨 위에 우뚝 섰다. 2위는 젠스 버튼(31·영국·맥라렌), 3위는 니 헤이필드(31·독일·르노)가 차지했다. 3라운드는 15일부터 사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이번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터, 음향 설비 완비
-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